

노후화된 ‘노량진수산물시장 지하보도’ 현대화

동작구, 수협중앙회·노량진수산물과 업무협약 체결
빠른 시일 내 안전 진단 거쳐 시설 보수·개선 진행

서울시 동작구가 노량진수산물시장 지하 보도의 개선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지난달 26일 동작구청에서 수협중앙회·수협노량진수산물과 ‘노량진수산물시장 지하보도 관리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임채영 수협노량진수산물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노량진수산물시장 지하보도는 1975년 수산물시장과 한곡방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을 돕기 위해 설치됐으나 장

기 방치로 시설이 노후화되며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서울시·수협과 협의를 통해 지하보도의 유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속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빠른 시일 내에 지하보도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수협중앙회·수협노량진수산물과 협력해 시설 보수와 현대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 기관은 차량 진입 동선 개선 등 수산물시장 관련 현안 해결에도 힘을 여

기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서울시 동작구가 노량진수산물시장 지하보도의 개선에 나선다. 지난달 26일 박일하(가운데) 동작구청장이 임채영(왼쪽) 수협노량진 대표이사·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작구

을 통해 노후화된 노량진수산물시장 지하보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

다”며 “주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영종·신도대교’ 개통 맞춰 종합 교통대책 마련

인천시, 2차 TF 회의…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버스노선 신설·교차로 정비 등 점검

인천광역시시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가칭)영종-신도대교(3.26km)’의 개통에 맞춰 도로와 주차장 조성, 버스노선 신설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전략회의(TF)를 지난달 26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8월7일 제1차 회의에 이어 교통국장 주관하에 진행됐으며 인천시 교통

관련 부서, 종합건설본부, 경제청, 웅진군, 중구 등 5개 기관의 10개 부서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조성, 버스노선 신설, 교차로 정비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4개 분야 9개 사업을 나누어 추진 상황과 예산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했다.

또한 과거 무의대교 개통 시의 상황과 경

험을 분석하여 신도대교 개통 시 웅진군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정기 회의를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신도대교 개통으로 웅진군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서울시 강남구가 4일 양재천에서 건강 걷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걷기 코스를 따라 걸으며 운동을 즐기고 있다.

강남구

“양재천길 걸으며 활기 넘치는 인생 누리세요”

강남구 4일 ‘건강 걷기 체험행사’… 혈당 측정·신체 분석·스트레스 관리 운영

서울시 강남구가 4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양재천에서 건강 걷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400여 명의 주민이 약6km(약 1만 보)를 걸으며 걷기 전후 혈당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걷기 코스 중간에 설치된 6개의 건강 부스를 체험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걷기 행사에서 벗어나 걷기의 실제적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먼저 걷기 전 혈당을 측정하고 걷기 후 다시 수치를 비교해 걷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된 이 방식은 평균적

으로 혈당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걷기 코스는 영동3교 북단에서 시작해 영동5교 북단 방향과 영동4교 남단 방향으로 나누며 변환점을 돌아 다시 영동3교로 돌아오는 형태다.

코스 중간에는 6개의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혈당 측정 △혈관·뇌 기능 등 신체기능 저하를 확인하는 자가공명분석 △귀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이어 테라피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마음건강 관리 △자생한방병원 한방의료 지원과 지하이엘 체형분석프로그램 체험 등

이 마련됐다.

각 부스를 방문할 때마다 스탬프를 찍고 최종 도착지까지 도착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공지 사항에 게시된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의 걷기 명소인 양재천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주민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걷기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투어패스를 직접 홍보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 홍보 ‘경기투어패스’ 8월에 평월보다 2배 넘게 팔렸다

여름휴가 기간 직접 사용… “가성비 최고” 자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여름휴가 기간 직접 사용하며 홍보한 ‘경기투어패스’의 8월 판매량이 762매를 기록하며 67월 월평균 대비 2배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관광 통합이용권(경기투어패스)’란 2023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상품이다.

올해는 광명동굴·쁘띠프랑스·안성판랜드·허브아일랜드 등 도내 150여 개 관광지과 카페 등을 △24시간권 1만 9900원 △48시간권 2만 5900원 △72시간권 3만 5900원 등으로 할인해 이용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올해 7월28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경기투어패스와 함께 여름휴가를 출발했다. 하루 동안 1만 원대로 경기도 전역의 관광지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 최고다”라며 “올 여름휴가는 경기투어패스와 함께 경기도로 오시면 어떠실까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지사는 경기투어패스로 양평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양평 서후리숲·양평 더그림식물원·동두천 놀자숲·양주 브루다양주 등을 방문했다.

이에 6월 3141매, 7월 3428매였던 판매량이 8월 7623매까지 상승했다. 올해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현재까지(27일 기준) 1만 7485매가 판매됐다. 지난해에는 8~12월 총 2만 4151매(8월은 4636매)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경기투어패스’ 3만 장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맹점을 출시 시점 80여 곳에서 현재 150여 곳으로 늘렸다.

경기투어패스 구매를 원하는 관광객은 11번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마이리얼트립·야놀자·여기어때·옥션·지마켓·쿠팡 등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인천 구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월미·개항장서 문화행사 개최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구도심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월미·개항장에서 야간 문화행사, ‘야간 피크닉 콘서트’와 ‘월미·개항장 야간마켓’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3차 연도를 맞아 야간관광 핵심 대상지를 기존 송도에서 월미도·개항장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야간관광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생력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야간관광도시로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바(Bar) 호핑투어’는 인천의 개항장과 신포동 일대에 위치한 이색적인 바를 돌아다니며 투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 매장에서 제공하는 1만 3000원의 특화 메뉴를 단 3000원에 즐길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바 호핑투어’는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앱 ‘인천 eX’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all nights INCHEON 야간 피크닉 콘서트’는 3월·11월·12월 총 3일간 인천 상상플랫폼 1883 개항광장에서 진행된다.

또 3일 시네마톡 & 야외 영화 상영과 11일 재즈 콘서트와 12일 피크닉 콘서트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3일간 팝콘 증정, 야간관광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 등 풍성한 부대 행사도 마련해 특별한 가을밤을 선사한다.

한편 콘서트 운영 기간에는 월미도, 개항장, 신포동, 차이나타운 등 인천 주요 관광지에서 ‘2024 all nights INCHEON 월미·개항장 야간마켓’이 개최된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에 마련된 서울홍보관에서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즐기며 서울 관광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관광재단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참가
서울시, 日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4(TEJ 2024)’에 참가해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TEJ는 일본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로 지난해 15만 명의 관람객과 70개국에서 1280여 개의 관광기업이 참가했다.

재단은 일본 관광객의 높은 한국 관광 선호도에 따라 적극적인 서울관광 홍보 및 유치 마케팅을 위해 일본 도쿄에서 단독 홍보관을 운영했다.

서울홍보관에서는 일본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울 일상 여행 테마의 스탬프 투어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 되었으며 4일 동안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